

작가의 글

이번 <Blue Head>작업은 “나를 바라보는 것”로 부터 출발한다.

존재론적인 나의 삶,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자의나 타의로의 속박, 그 속에서 희망과 미래, 새로움을 꿈꾸는 나를 작품화한다. 나는 공상을 좋아하고, 그리기를 즐겨한다. 그리고 점토작업을 좋아하고 도예가이기에 불을 다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포섭하고 충족할 나만의 독자적 표현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의 두상은 예전 프랑스 유학시절 초기 중세 고딕성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조상들에 매료되었던 개인적 경험에서 연유했다. 인간 두상은 오랫동안 조각사 전반에서 수없이 재현되고 있을 만큼 입체를 다루는 작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재이자 도전과제이며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이다. 건축물의 부속이자 요소로서 인물 조상이 전체 군집과 이루는 조화 뿐 아니라 개별이 지닌 이야기, 조형성, 문화성 등은 당시 이방인인 나의 눈에 특별한 흥미와 호기심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인간의 두상과 더불어 내 작업의 또 다른 주요소는 블루다. 블루는 유채색과 무채색을 뛰어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색이다. 또한 블루는 무한가능성을 열어주는 세계를 품고 있다. 그래서 나는 블루가 좋다.



<Blue Head I>은 언뜻 부처의 모습, 중세 고딕 조각 등의 모티브로부터 출발한다. 조각의 대표적인 재료인 금속의 색 그리고 청화(靑華)로 대변되는 도자(Blue and white porcelain)의 색을 이용한 드로잉이다. 나는 옛 시대의 명기(名器)들을 떠올리며 기물의 표면 위에 푸른 이미지들을 그렸다. 이 금(金)과 토(土) 두 물질이 지닌 색과 형태들은 우리 존재와 삶 속에서 공존하는 자연의 섭리를 상징한다. 형상을 그리고 그 위에 뭍고 엮은 푸른색으로 다시 붓질한다. 그리고 마지막 금속 질감의 유약으로 동질화시키고 조화롭게 한다.

이 연작의 ‘skull’은 청화백자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문양들-중국의 당대, 유럽

과 아랍의 모자이크, 세계 각국의 전통 문양을 차용했다. 푸른색과 도자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지역, 문화, 시대와 관계했던 다양한 이미지들이다. 이것을 하나의 화면에 압축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 낙서 같은 재현과정을 통해 도자타일 작업과 캔버스 위에 새로운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유사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도자 타일과 캔버스는 재질, 화면의 크기, 기법, 과정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흙과 유약, 불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도자와 달리 캔버스는 일시적이고 즉각적이며 순간의 감성을 물질성으로 일시에 표출하기에 적합하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평면 작업-도자타일과 캔버스를 통해 나의 응축된 내면과 감성, 사유를 드러낼 새로운 나의 작업을 찾는 작업이다.

<Blue Head II>은 마치 새장을 연상시키는 오브제들이 채운 듯 그러나 비워진 상태로 전시공간에 연출된다. 해부학적으로는 핏줄과 힘줄이고 색과 선들의 엇갈림과 뒤엉킴은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억압된 표현이다.

<Blue Head III>는 일종의 접시 위의 드로잉이다. 접시는 흙과 불을 다루는 도예가에게 캔버스와 다른 차원의 예술적 시도이자 화면이다. 나는 청화로 그린 옛 접시들에서 이 작업의 모티브를 찾았다.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의 청화백자 사랑은 각별하여 중국자기를 동경하고 수입해왔다. 특히 유럽의 귀족들은 백자접시 위에 청화로 초상을 그려 회화대신 벽에 장식하기를 즐겼다. 이렇게 맞춤 제작한 청화의 초상 중에는 왕비, 귀부인 등 여성의 초상이 많다. 나는 성(性)은 여성이지만 여성성이나 섹시함과는 거리가 먼 여성들의 이미지가 흥미로웠다. ‘재현’이라는 행위를 매개로 재해석하였다. 나는 청화로 그려진 여인들의 초상들을 마주하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공간을 넘는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를 만났다. 그러면서도 그 일은 옛 푸른 초상이 지닌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탐색과 발견을 거듭하는 것이었으며, 그 바탕으로 나만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즐거운 과정이었다.



모든 작업은 작업하는 내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열정, 의지와 욕망을 담고 있다. 도(陶)와 캔버스의 화면을 오가며 펼친 이미지들을 마주하며 작가로서 꿈꾸고 지켜가고 싶은 나의 지향을 다시 채근해본다.